순진한 마음 일어 믿음의 세계로…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③ 부처님을 만나다

승만 부인은 편지를 받고 기뻐서 머리 위에 받들었다가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희유한 마음을 내어 찬다라에게 노래를 부르듯 말하였다.

"내 듣자니 부처님의 음성은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것, 말씀대로 진실하다면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하리라. 우러러 생각건대 부처님께서는 널리 세상을 위하여 나오셨으니 응당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저로 하여금 반드시 뵈올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어 널리 밝은 광명을 놓으시고 견줄 바 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 승만 부인과 그 권속들은 머리를 발에 대고 절을 하고는 모두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였다.

"여래의 미묘하신 몸은 세상에서 짝할 수 없는 것. 견줄 바 없이 불가사의하시니, 그러므로 지금 공경히 예배드리나이다. 여래의 몸은 다함이 없고 지혜도 또한 그러해 일체의 모든 법에 항상 머무시니 그러므로 제가 지금 귀의하나이다. 마음으로 지은 허물인 악업과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도 이미 다 조복하신 경지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법왕께 절하옵니다. 일체의 알아야 할 바를 모두 아시며 지혜의 몸이 자유자재하시며, 일체 법을 모두 지녔사오니 내 지금 공경히 예배하나이다. 부처님의 크신 공덕 헤아릴 수 없음에 예배하며 비유할 수 없음에 예배하며 가없는 법문에 예배하며 불가사의함에 예배하나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불법의 종자가 자라나게 하소서.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원하옵나니 부처님 언제나 거두어 주소서.

'내 이제 너를 편안케 하여 전세에 이미 깨달음을 얻게 하였고 이제 다시 너를 거두어 주노니미래의 생에도 그러하리라.' 하소서 저는 이미 공덕을 지었으니 현재에도 또 다음 생에도 이와 같은 온갖 선근으로 원하옵나니 거두어 주실 것을 보여 주소서. 이때 승만과 그의 모든 권속들이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신심을 일으켜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제2의 탄생이다. 편지를 받은 승만 부인이 환희심을 내어 부처님을 찬탄하고 뵙기를 원하였더니 부처님이 공중에서 광명을 놓고 나타난다. 이는 선근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장면이다. 승만 부인이 곧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편지를 읽고 난 기쁨을 이길 수 없고 부처님의 출현에 감격하여 찬탄 예배를 한 것이다. 게송을 읊고 절을 올리는 모습이 마치 요즈음 불자들이 법당에서 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종교(宗敎: religion)의 어원이 라틴어 'religio'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어원의 뜻을 예배(禮拜)라고 번역하며 또는 결합(結合)이라 번역한다. 물론 이는 서양의 신을 믿는 종교에서 먼저 해 온 말이다. 인간이 초월자 혹은 절대자에게 예배를 올린다는 의미와 인간을 절대자와 결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교에 있어서 예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으로 공경의 예를 갖출 때 신심이 우러나고 신앙심이 돈독해지는 것이다.

입적한 지 오래된 어느 큰스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는 조건으로 3000배의 절을 하게 했다는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절이란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공경을 표하는 예법이지만 진리를 위하여 몸을 던진다는 숨은 뜻이 있다. 나를 낮추는 하심(下心)이요, 참회하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 동시에 부처님을 향하여 자기의 원을 피력하고 그러한 원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힘에 의하여 성취되기를 바라는 순진한 마음이 일어나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신행이 귀의, 찬탄, 참회, 발원의 네 가지에 의해 믿음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 중에 선근(善根)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좋은 일은 모두 선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선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전생, 금생, 내생의 삼생에 걸쳐 선근이 온갖 선근이 성숙되어 부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을 바라는 승만 부인의 마음이 순진무구하고 진실해 보여 매우 인상적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무량 응신으로 중생 구제하는 관음보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㉖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이처럼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지만 오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부처님을 대신해서 대자대비심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가범달마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한 보살임이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난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처럼 능히 다라니를 설하시는 이 보살마하살은 다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라고 사뢰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보살의 이름은 관세음자재로 일명 연색(撚索), 또는 천광안(千光眼)이라 한다. 이 관세음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으니, 과거 무량겁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 그 호를 정법명여래(正法明如來)라 하였다. 그럼에도 대비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보살의 형상을 나타냈으니, 모든 대중과 범천, 제석천, 사천왕, 천, 용, 귀신 등이 마땅히 그를 공양 찬탄하면 많은 복을 얻고 죄를 멸하여 목숨이 다하고 난 뒤 아미타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고 분명히 성불한 보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성불한 보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의 형상으로써 모든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고 설하셨습니다. 경의 내용과 같이 관세음보살은 구세자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원력과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현(應現)하십니다. 때론 33응신을 하기도 하고, 34응신을 하면서 다양한 변화력과 응현력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응현하시는 모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응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우리 중생들의 성품과 욕망이 다양하고, 중생의 원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 성문, 연각의 모습으로, 때로는 신의 모습으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묘법연화경〉 '보문품'에서는 '33응신의 구세자'로서 관세음보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묘음보살품'에서는 '34응신'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엄경〉에서는 32응신의 구세자로서 관세음보살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무량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모습을 나투시어 중생을 교화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육도윤회세계의 중생구제를 위해 윤회세계에서 때로는 6관음의 모습으로, 때론 8대관음의 모습으로, 때로는 11면관세음의 모습으로, 40관세음, 42수관세음의 모습으로, 때론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대자대비한 신통으로 보신을 나투시며 다양한 변화의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한량없는 모습으로 나투시어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③ 번뇌는 앎의 발판

'나' 있는 한 번뇌 버릴 수 없어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한 보는가?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는 것이 있는데, 수행승들이여,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수행승들이여,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용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인내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피함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제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행에 의해서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

번뇌란 무엇일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수행 역시 일상을 벗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일상의 바른 봄이 수행이라는 마음을 오롯이 새기고, 생각의 범람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지를 우선 살펴보자. 그래야 번뇌의 소멸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번뇌는 '개인의 번뇌'와 '공통의 번뇌'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번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불안한 마음이다. 공통의 번뇌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에 대한 이치에 맞는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관찰하여야 한다.

우리 각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 우주에 혼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한다. 만약 이 착각이 사실이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같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자신 조차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밤에 집 앞에서 굵은 밧줄을 뱀으로 잘못 보았다면 밤새 두려움에 떨겠지만, 날이 밝아 보니 뱀이 아닌 굵은 밧줄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걱정한 스스로에게 헛웃음이 지어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세히 관찰하여 보려하지 않고 미리 마음으로 짐작하여 확신하므로 불안한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일으킨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 일어난 것이 아님을 바로 보아야 한다.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확실한 존재가 항상 실재 한다고 생각하고 그 '나'에 대해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의 선택이 옳기를 바라며 그 선택이 나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양이나 소리 그 무엇이든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모름의 봄을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지랑이와 같다는 걸 알게 된다. 존재한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도 이와 같은 이치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배우고 '있다'라고 기정사실화 시킨다. 생로병사는 계속 돌고 있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아지랑이는 아무 두려움 없이 보면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내가 '내 몸'이라는 번뇌를 가져 생긴 병일뿐이지, 실재하는 '내 몸'은 없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세상은 하나로 생겨났지만 견해는 두 가지가 생기니, 두 가지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네. 체와 용, 그 이름과 모양은 다르지만 순간적인 인연으로 다르게 보일뿐 다름이 될 수 없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이는 것은 그 물결의 다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연의 출현이며, 바람의 인연이 다하면 다시 물로 돌아간다네. 항상 같이 있지만 인연의 출현으로 달리 나타나듯, 세상의 모든 현상 이와 다름이 없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골육종에 무너진 청년의 꿈…
"다시 웃을 수 있길"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탄 골육종에 왼쪽다리 절단
병원비만 1000만원 이상…의족 있으면 걸을 수 있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